

○ 문 정부 들어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부담 급증

- 1주택 종부세 납부자: 2016년 6.9만 명 → 2020년 29.1만 명, 4.2배 증가
- 전체 종부세 대상자 중 1주택자 비율 : 2016년 25.1% → 2020년 43.6%, 18.5%p 증가
- 1주택자 종부세액 : 2016년 339억 원 → 2020년 3,188억 원, 9.4배 증가

※ 국세청, '2016~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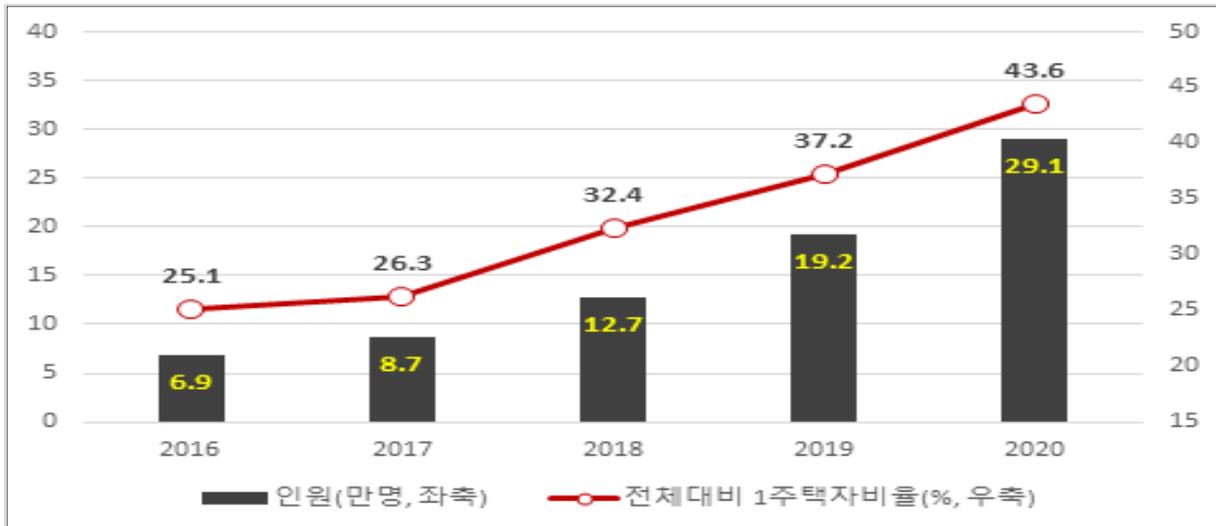
○ 자산 양극화 완화 취지 사라지고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으로 변질

○ 종부세, '땀질 처방'이 아닌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개편이 중요

-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에 의한 국민 세 부담 증가는 '조세법률주의 원칙'에 위배
-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은 '응능(應能)부담' 원칙에 어긋남

문 정부 들어 1주택 종부세 납부자 급증 : 2016~2020년 중 4.2배 증가

단위: %



주: 2016~2019년은 결정세액 귀속분, 2020년은 고지액 기준

자료: 국세청, '2016~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',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